
국외출장 결과보고

- MIPTV 참관 및 ITU·EBU 방문 -

2016. 5.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출장 내용	2
1. MIPTV 참관	2
1) MIPTV 행사 개요	2
2) 주요 전시 현황	3
3) 매매 실적	5
4) 시사점	5
2.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방문	8
1) Houlin Zhao ITU 사무총장 면담	8
2) ICT Discovery 방문	10
3) 이재섭 ITU표준화총국장 면담	11
3. 유럽방송연맹(EBU) 방문	13
1) Ingrid Deltenre EBU 사무국장 면담	13
2) Media Room 방문	16
III. 참고자료	17
1) 주요 국가별 드라마 제작 동향	17
2) MIPTV 참여 한국 기업 현황	20
3) 관련 보도자료	21
4) 공무여행계획서	23

□ 출장 개요

- 기 간 : 4월 3일(일) ~ 4월 8일(금) 4박 6일
- 출장 지역 : 프랑스(칸느), 스위스(제네바)
- 출장자 : 고삼석 상임위원, 박동주 방송기반총괄과장, 성재식 비서관

□ 주요 업무

- (MIPTV 참관) 국내외 기업 전시관을 방문하여 국제적인 방송 콘텐츠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관련 의견 청취 등
- (국제기구 협력) ITU 사무총장, EBU 사무국장 등과 방송통신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한국과의 교류협력 방안 등 모색

□ 주요 일정

일 자	시 간	일 정
4.3.(일)	13:05-22:30	항공 이동(인천 → 파리 → 니스)
4.4.(월)	09:00-18:00	MIPTV 참관 및 국내외 관계자 면담
4.5.(화)	10:00-16:00 19:20-20:15	MIPTV 참관 및 국내외 관계자 면담 항공 이동(니스 → 제네바)
4.6.(수)	09:00-10:30 오 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방문 및 사무총장 면담 출장결과 중간정리 및 간담회
4.7(목)-8(금)	10:00-12:00 14:30-15:00 18:00-15:00	유럽방송연맹(EBU) 방문 및 사무국장 면담 ITU 표준화총국장 면담 항공 이동(제네바 → 파리 → 인천)

1. MIPTV 참관

◇ 일 정 : 2016. 4. 4.(월) ~ 4. 5.(화)

◇ 주요 내용

① MIPTV 행사 개요

- (행사명) MIPTV(Marché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Télévision, 국제 TV프로그램 마켓)
- (주관) ReedMIDEM(리드미데미)
- (개최지) 프랑스 칸느, Palais des festival

○ (행사내용) 드라마·다큐·애니 등 각종 영상 콘텐츠부터 프로그램 포맷* 에 대한 매매가 이뤄지는 세계 최대의 영상 콘텐츠 마켓

* 포맷 : 프로그램의 제작방식만을 구매해 재제작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무한도전, 런닝맨 등의 프로그램을 포맷 수출 형식으로 중국에 판매한 바 있음 (포맷은 국제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며 관례적으로 그 권리가 인정됨)

○ 행사규모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참가사	4,269	4,134	3,087	3,728
참가국	101	100	100	100
참가자	11,247	11,138	약 11,000	약 11,000
바이어	3,458	4,091	4,340	4,146

○ 국내 참가업체

- 방송사 및 제작사 : KBS, MBC, SBS, CJ E&M 등 17개사
- 애니메이션 제작사 : 아이코닉스, 시너지미디어 등 17개사

② 주요 전시 현황

행사장은 본관(표 아래 건물) 및 별관(표 위 건물)으로 구분되며 본관 지하 1층에는 소규모 부스가 마련되어 있고, 본관 1~3층과 별관에는 주요 콘텐츠 제작사들의 대형 부스가 입점(모든 업체들이 주로 드라마와 예능 판매)

< 행사장 구조 >



- (국내 업체) 주로 본관 지하 1층에 입점했으며(KBS는 별관 1층) MBC, SBS, CJ E&M 등 주요 방송사는 개별 부스를 마련했고, 기타 참여사는 KOCCA(한국콘텐츠진흥원)가 마련한 공동부스에 입점

※ 부스별로 2~3인의 실무자가 파견되어 바이어들과 협의 진행

- (해외 업체) BBC, Viacom, MGM, HBO 등 해외 주요국의 제작사들은 본관 및 별관에 대규모 부스를 설치했으며, 특히 일부 업체(美워너 브라더스 등)는 행사장 외부 해변근처에 단독 부스를 설치하기도 함

※ 중국, 중동, 북유럽 등의 참가사들은 우리 업체와 같이 지하 1층에 소규모 부스 설치

□ 국내 업체 부스



KBS미디어



MBC



SBS



KOCCA 공동관



EBS



CJ E&M

□ 해외 주요업체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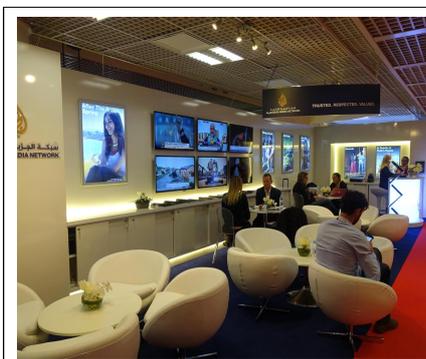
BBC World Wide



STARZ(미국)와 MGM



Viacom과 ITV(영국)



알자지라



KANAL-D(터키)



CCTV

③ 매매 실적

- (전체 규모) 행사 주최측은 전체 거래실적을 별도로 집계하지는 않으나 대략 60~70억 유로(한화 약 7.7~9조원) 가량으로 추산
- (국내 업체) 국내에서 참여한 17개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판매 실적은 약 \$1,170만으로 전년 대비 약 13% 상승
 - ※ 방송사별 세부 판매 실적은 비공개이며, 국내 참여 애니메이션 업체의 거래실적은 별도 취합 중

④ 시사점

[콘텐츠 시장 트렌드]

- MIPTV에서의 콘텐츠 시장은 크게 드라마와 예능으로 구분되며, 드라마는 방영권과 리메이크 저작권 위주로, 예능은 주로 포맷이 거래됨
 - 현지 바이어들에 따르면 드라마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거대 자본을 투자한 대작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리스크 분담을 위해 공동제작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음
 - 예능은 일반적으로 드라마에 비해 제작비가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중소 제작업체 또는 방송사들은 주로 예능제작(포맷 수출)에서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드라마 제작에 나서기도 함
 - 특히 Kanal-D(방송사), Global Agency(제작사) 등 터키 미디어 기업의 콘텐츠가 북남미, 아시아 등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잠재적인 한류의 경쟁자로 대두
- NBC, BBC, ITV, RAI(이탈리아) 등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송사들과 Global Agency, Armoza Format 등 포맷 업체들은 국내 업체의 3~5배에 이르는 개별 부스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는 등 콘텐츠 시장 주도

< MIPTV의 Global Agency 부스 >



[우리나라 한류의 한계]

- 우리나라 방송사 및 제작사들은 주로 중국, 일본, 중동 등 아시아권과 중남미 등지에 방송 콘텐츠를 지속 판매하며 '한류 붐' 조성
 - 다만 이는 '대장금', '겨울연가', '별에서 온 그대' 등 일부 인기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이뤄졌으며, 이후 유사한 포맷과 내용의 프로그램이 지속되어 한류勢 확장에 한계를 드러냄
 - ※ 금년 MIPTV 행사에서도 KBS는 '태양의 후예'만을 크게 홍보했으며, MBC 및 SBS도 기존 드라마나 예능 위주로 판매 추진
 - MIPTV 행사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터키를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제작사들은 최근 몇 년 간 제작역량이 크게 상승했으며 다양한 소재를 무기로 기존 한류 시장을 공략 중
 - 국내 방송사 및 제작사들이 해외시장으로 보다 활발히 진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재원을 늘려 보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매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향후 추진전략]

- 현재 방송사들은 광고수익에 치중해 시청률이 보장된 '안전한' 프로그램만을 제작하려는 경향이 있고, 유통채널이 방송사에 편중된 제작사들도 방송사의 요구를 반영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지속 제작하는 실정

- (정부) 광고규제 완화 및 수신료 현실화 등을 통한 방송사 재원 확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방송사들과의 공동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 (방송사, 제작사) 지속적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고 외국과 공동 제작을 추진하는 등 해외시장에서의 문화적 할인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포맷수출, OTT 서비스 유통 방식 다변화 필요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원확충→양질의 콘텐츠 제작→수익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글로벌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

- 한편, 우리나라 제작사들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우 사전심의, 방송사별 해외 프로그램 수입 쿼터 등 각종 규제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자체 제작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 추진
- 현지 국내 업체들은 ‘별에서 온 그대’에 이어 ‘태양의 후예’가 최근 중국에서 크게 인기를 얻은데 따른 대응으로 중국 당국이 규제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
- 위원회는 한-중 FTA 체결 후속조치로 진행 중인 ‘한-중 공동제작 협정’ 체결 시 한국측 제작사의 참여가 공동제작으로 폭넓게 인정되어 중국 당국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고삼석 상임위원 MIPTV 참관 장면 >



2.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방문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 설립 : 1865년 국제전신연합을 모체로 전기통신 개선 전파 관련 국제적 협력 및 조정 등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1934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이 국제전신연합 계승)
- 주요 업무 : 국제적인 주파수 대역 분배, 전기통신 표준화, 개발도상국 지원 등
- 구성 : 전권위원회, 이사회, 전파통신부문(ITU-R),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전기통신개발부문(ITU-D)
- 우리나라와의 협력
 - 우리나라는 1952년 ITU에 가입했으며 1989년 이래 7회 연속으로 ITU 이사국에 선출되어 활동 중. 2014년 부산에서 ITU 전권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해당 회의에서 ITU 표준화총국장에 우리나라 이재섭 박사가 선출
- 회원국 : 193개국

① Houlin Zhao(홀린 짜오) ITU 사무총장 면담

□ 면담 개요

- 일시 / 장소 : 2016. 4. 6.(수) 09:00~10:00 / 사무총장 집무실
- 참석자 : 고삼석 상임위원, 박동주 과장, 성재식 비서관, 홍성완
駐제네바 대표부 참사관(미래부 파견)

□ 주요 논의사항

① ITU Telecom World 2017 부산 개최

- (고삼석 위원) ITU Telecom World 2017 행사가 부산에서 개최될 경우 한국의 ICT 인프라와 연계한 이벤트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 행사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음
- 또한 부산은 이미 2014년 ITU 전권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어 개최도시로 손색이 없음

- (짜오 총장) 한국은 ICT 분야 선진국으로서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될 경우 행사의 성공을 확신하며, ICT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
- 다만 현재 행사개최를 위한 정부(기재부)차원의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방통위가 지원해주기 바람

② ITU-UNESCO 브로드밴드위원회 보고서

- (고삼석 위원) 사무총장께서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ITU-UNESCO 브로드밴드위원회 산하 Demand 워킹그룹에서 발간하는 최종보고서에 KT가 제출한 정보화 사례*가 수록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 정부와 KT가 공동 추진한 정보화마을 프로젝트, 농어촌 BcN 프로젝트
- (짜오 총장) Demand 워킹그룹의 수장이 KT의 황창규 회장이며,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가 최종 보고서에 수록될 것으로 생각함

③ 한국-ITU 간 협력 강화

- (짜오 총장) ICT는 지속가능 발전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ICT를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에 전수하는 사업에 많은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람
- 이와 함께 ITU는 정부 외에도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업과 대학들과의 활발한 교류 기대
- ※ 현재 ITU는 한국정부 외에 ETRI, TTA, 부산시 등과 협력 중
- (고삼석 위원) 현재 KT가 르완다에 진출하여 3G, 4G 등 ICT 시스템을 전수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ODA 사업의 일환으로 저개발 국가에 정보화센터 구축 지원 사업도 추진 중임
- 한국은 5G, IoT, BigData 등 신기술 인프라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ICT 선진국으로 ITU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교류협력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희망

< ITU 사무총장 면담 장면 >



② ICT Discovery 방문

- 일시 / 장소 : 2016. 4. 6.(수) 10:30~11:00 / ITU 본부內
- 참석자 : 고삼석 상임위원, 박동주 과장, 성재식 비서관, 홍성완 駐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 ICT Discovery >

우리 인류의 ICT 역사와 ITU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해 2008년 ITU 본부 내에 설립된 기념관으로 최초의 전기통신 역사부터 최신 첨단 ICT 기술까지 시계열적으로 망라되어 있음

< ICT Discovery 방문 장면 >



③ 이재섭 ITU 표준화총국장 면담

- 일시 / 장소 : 2016. 4. 7.(목) 14:30~15:00 / 총국장 집무실(ITU 본부 內)
- 참석자 : 고삼석 상임위원, 박동주 과장, 성재식 비서관, 조해근 부이사관(미래부 ITU 파견), 홍성완 駐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 주요 논의사항

- (이재섭 총국장) 5G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콘텐츠 제작과 소비에 참여하는 Prosumer 현상이 일반화될 것이며 그 콘텐츠의 핵심은 동영상
 - ※ 전 세계 트래픽의 절반가량이 동영상 관련 데이터이며 지속 증가 추세
 - 동영상의 미래(Future of Video)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으며 연관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표준화 연구를 진행 중임
- (고삼석 위원) 모든 플랫폼은 더 많은 콘텐츠와 연결될수록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동영상의 미래'와 관련한 표준화 작업에 자본력을 갖춘 우리 통신사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재섭 총국장) 현재 ITU에서 Smart Africa Project*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 * Smart Africa Project : 아프리카 저개발국에 ICT 기술을 지원해서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으로 ITU는 이를 위한 기금 300조원 모금 추진
 - KT가 르완다에서 ICT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더 많은 개발도상국에 진출하기를 희망함
- (고삼석 위원) Smart Africa Project는 아프리카 저개발국 지원과 우리 ICT 기술의 해외 진출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 추후 관련 업체와의 면담 시 본 사업 참여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음

- (이재섭 총국장) 현재 KT의 GIGA 인터넷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이 기술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제안한 상태임
- (고삼석 위원) 한국인 출신 최초로 ITU의 선출고위직에 당선되신 만큼 한국 ICT의 발전과 해외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함
 - 추후 방송통신위원회와 ITU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 ITU 표준화총국장 면담 장면 >



3. 유럽방송연맹(EBU) 방문

< 유럽방송연맹(EBU) >

- 설립 : 1950년 유럽 방송지역(유럽, 지중해 연안의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이익보호와 정보교환을 위해 설립
- 주요 업무 : 회원사를 위한 스포츠 이벤트 방송권 체결, 유로비전 및 유로 라디오 운영, 프로그램 교환 및 방송합작 추진·조정 등
- 구성 : 56개국 73개 정회원사, 35개 준회원사(KBS가 준회원에 등록)
- 자매기관 : 아시아태평양방송연합(ABU), 북미방송연합(NABA), 아프리카 국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구 연맹(URTNA), 아랍연방방송연맹(ASBU) 등

① Ingrid Deltenre(잉그리드 델텐르) EBU 사무국장 면담

□ 면담 개요

- 일시 / 장소 : 2016. 4. 7.(목) 10:00~12:00 / 회의실
- 참석자
 - 대표단 : 고삼석 상임위원, 박동주 과장, 성재식 비서관, 홍성완 駐제네바 대표부 참사관(미래부 파견)
 - EBU : Ingrid Deltenre(Director General)
Hans Hoffmann(Head of Media Fundamentals & Production Technology)
Simon Fell(Director of Technology & Innovation)

□ 주요 논의사항

① 한국과 유럽의 UHD방송 추진 현황

- (고삼석 위원) 한국은 '14년 사회적 논의를 거쳐 700MHz 대역 일부를 지상파 UHD 방송용에 분배했으며, '15년말 '지상파 UHD방송 정책방안'을 수립하여 '17년 본방송을 목표로 관련 인허가, 표준연구 및 규제정비 절차 진행 중
- 현재 유럽방식(DVB-T2) 뿐만 아니라 미국방식(ATSC 3.0)을 통한 시험 방송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금년 6월 중 최종 기술방식 결정 예정

-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유럽시장에서 4K 인증을 얻어 앞으로 유럽 방송사들과 지속적인 협력 예정
- (텔텐르 사무국장) 유럽시장에서는 아직까지 UHD 방송이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유럽은 DVB-T2 기반에 HEVC(초고효율 비디오 압축기술)를 결합한 4K 해상도의 UHD 표준을 제정(현재 1단계)했으며 향후 고화질, 고프레임 기술을 접목하여 추가적인 표준을 만들 예정(2019년까지)
 - 유럽 UHD 시장은 IPTV(BT sports)와 OTT(Netflix, Amazon Video)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으며,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실용주의적* (pragmatic)으로 접근하고 있음
 - * 많은 유럽국가에서 HD 디지털 전환이 이제 막 완료되었고, UHD 기술이 현재도 개발 중인만큼 향후 추이를 주시하고 있으며, 일부 방송사는 UHD 보다 HD방송을 업그레이드한 Enhanced HD방송에 관심을 보이는 등 지상파 UHD 방송에 신중
 - 한국과 달리 유럽 각국 정부는 700MHz 대역을 이동통신용에 분배하려 하고 있으며 EBU는 무료 보편서비스 지속을 위해 노력 중
 - 장기적으로 UHD방송 시장은 위성 및 케이블방송이 90%를 점하고 지상파는 10% 정도의 틈새(Niche)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

② 방송-통신사업자 간 인수합병 사례

- (고삼석 위원) 한국의 이통 1위 사업자 SKT는 최근 1위 케이블TV 사업자인 CJHV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데 유럽의 경우 이런 사례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 (텔텐르 사무국장)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도 방송, 통신사업자 간 이종 결합사례가 있었으며 정부는 세부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선에서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음

③ 기 타

- (텔텐르 사무국장) Netflix가 유럽 방송시장에 급속히 침투했으며 Amazon Video도 장기적으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어 방송사들도 방송공급 거부 등 견제하기 시작했음
- (고삼석 위원) 최근 Netflix의 현지화 전략(Localization)에 따라 현지 제작사들과 공동제작을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 유료방송 해지(Cord Cutting)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한-EU FTA에 명시된 공동제작 조항 등에 따라 한국과 EU 방송사 간 교류협력을 활발히 진행하여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 필요
- (고삼석 위원) EBU의 준회원인 KBS는 현재 정회원 국가들과의 영상물 교환 시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 * 어린이 프로그램 교환 시 약 USD 45,000/year 비용 지불
 - 준회원에 대한 영상물 교환 수수료를 낮춰 활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텔텐르 사무국장) 정회원은 규정상 region 1(유럽, 아프리카, 중동, 舊 소련 지역 등)에 속해야 하며, 수수료 인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해 보겠음

< EBU 사무국장 면담 장면 >



② Media Room 방문

< Media Room >

방송 관련 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미래 가정의 모습을 상상하여 꾸며놓은 방으로서 EBU가 추구하는 기술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음

- 일시 / 장소 : 2016. 4. 7.(목) 12:00~12:20 / EBU 본부 內
- 참석자 : 고삼석 상임위원, 박동주 과장, 성재식 비서관, 홍성완 駐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 Media Room 방문 장면 >



붙임 1

주요 국가별 드라마 제작 동향

국가(지역)	주요 동향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에 드라마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서 CBS, NBC, ABC 등 지상파와 HBO, Showtime 등 케이블채널이 경쟁력을 갖춘 '미드' 시장 형성 ○ HBO는 'Sopranos'를 통해 대성공을 거뒀으며 이후 'Games of Throne' 'Entourage', 'News Room' 등을 연달아 히트시킴 ○ 중소 방송사였던 AMC는 스토리를 중시하며 'Mad Man'을 크게 히트시키고 'Breaking Bad'와 'Walking Dead'를 연이어 성공시킴 ○ 기존 방송사 외에도 Netflix와 Amazon 등 OTT 사업자도 자체 제작을 시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tflix는 'House of Card'를 제작해 큰 성공을 거뒀으며 Amazon도 코미디 시리즈 제작을 추진 중임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은 2차대전을 소재로 한 'Generation War'와 'Deutschland 83' 등을 통해 미국, 유럽 등 십여 개국 방송사에 수출하며 글로벌 드라마 강국으로 거듭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Deutschland 83'를 방영한 영국 Channel4는 이를 통해 영국내 비영어 드라마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기도 함 ○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작품은 X-Film과 ARD Degeto 등이 합작한 'Babylon Berlin'으로 1920년대 베를린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 독일은 Amazon, Netflix 등 글로벌 OTT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azon은 독일어 드라마 'The Wanted'를 제작하기로 했으며, Netflix도 'Entitled Dark'을 독일 제작진과 만들기로 함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 TROPEZ'와 'BRACO'는 글로벌 시장에서 처음으로 관심을 받은 프랑스 드라마이며, 가장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는 CANAL+의 'Engrenages'임 ○ 'Engrenages'의 성공으로 프랑스 드라마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최근 'Witnesses'가 Channel4(영국), Channel one(러시아), SBS(호주)등 전세계 25개국에 수출됨 ○ 또한 Canal+의 영어 드라마 'Versailles'도 큰 인기를 누려 시즌2가 제작 중이며, 2009년부터 제작된 'Un Village Francais'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어 2016년 마지막으로 시즌7(한국 MBC에도 판매됨) 제작을 준비하고 있음

국가(지역)	주요 동향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키는 드라마 부문에서 큰 강점을 보여 중동, 동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어왔으며 최근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남미에서까지 꾸준한 판매를 기록함 ○ 터키 제작사인 Global Agency의 다양한 드라마는 현재 100개 지역 (territory)에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으며, 방송사 Kanal7의 'Elif', 'Cherry Season'등도 남미, 동남아, 동유럽 등에서 큰 인기를 얻음 ○ 터키 드라마의 강세 요인으로는 ▲다양한 스토리라인 ▲동서양을 아우르는 터키 드라마 특유의 감성 ▲강한 가족애 등을 꼽을 수 있음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드라마는 최근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Bambu Produccion이 제작한 'Gran Hotel'은 전 세계에 판매됨 ○ TV3 Spain이 제작한 'Red Braceletes'도 독일 Channel Vox에 수출되어 큰 성공을 거둠 ○ BoomerangTV는 'El Principe'을 이탈리아(Canale5), 포르투갈(RTP) 및 중남미 등지에 판매했으며, 'Motivos Personales and Los Misterios De Laura'도 미국의 ABC와 NBC에 판매됨
중남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evisa나 TV Azteca와 같은 방송사가 제작한 텔레노벨라(중남미에서 인기 있는 사랑 주제 드라마)는 지난 수 십 년 간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왔음 ○ 최근 멕시코 방송사 Giant Televisa는 Aztec 시리즈 등을 통해 영어 드라마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 중 ○ 브라질 방송사 Globo는 최초로 스페인어 드라마 'Supermax'로 전 세계 시장 공략 추진 중이며, 'Supermax'가 성공할 경우 영어권 시장에도 도전할 계획
북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Bridge'(덴마크), 'The Killing'(스웨덴), 'Borgen'(노르웨이)은 전세계 드라마 시장 관계자의 이목을 끈 북유럽 드라마 ○ 북유럽 지역 드라마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좁은 지역과 소자본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제작(또는 협업)을 들 수 있음

국가(지역)	주요 동향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이탈리아는 주로 내수시장을 위한 드라마를 제작해 왔으나 최근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방송사 Rai의 탐정물 'Young Montalbano' 시리즈가 BBC에 판매됨 ○ 제작사 Wildside는 영국의 FremantleMedia에 합병된 후 제작사 Fandango Production과 협업하여 'Elena Ferrante's Acclaimed Neapolitan quartet od novels'를 제작함 ○ 범죄 드라마 '1992'와 'Gomorrah'도 전세계에 많이 판매됨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릴러 장르인 'Hatufim'이 미국 케이블채널 Showtime에 'Homeland'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어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 'Prisoners of War'라는 제목으로 한국, 러시아, 멕시코 등에 판매됨 ○ 'Bnei Aruba'는 미국 CBS에서 'Hostage'로 리메이크되었으며 이후 BBC, CANAL+ 등의 유럽 방송사에서도 리메이크됨 ○ 현재도 이스라엘의 드라마는 방영권 및 리메이크 형태로 전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드라마는 중국과 일본을 위시한 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중국의 온라인 포털 Sohu는 KBS의 '프로듀사'를 \$240만에 구입했으며 동영상 공유 사이트 Youku Toudu도 SBS의 '피노키오'를 회당 \$28만에 구입 ○ SBS의 '감각남녀'는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전역에 판매됨 ○ 글로벌 시장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최근 미국의 Warner Brothers는 한국의 영화와 쇼를 전문 방영하는 DramaFever를 매입했으며 Keshet International은 '스파이'에 대한 전세계 방영권 매입 ○ 최근 종영된 KBS의 '태양의 후예'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전세계 32개국에 판매됨

붙임 2 MIPTV 참여 한국 기업 현황

순번	업체명	구분	순번	업체명	구분
1	KBS미디어	방송사	18	삼지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제작사
2	MBC		19	브랜드스토리	
3	SBS콘텐츠허브		20	영실업	
4	EBS		21	아트피큐	
5	CJ E&M		22	크리스피	
6	채널A		23	오로라월드	
7	아리랑TV		24	탁툰엔터프라이즈	
8	마운틴TV		25	그래피직스	
9	SKY TV		26	로코엔터테인먼트	
10	AVA엔터테인먼트	외주 제작사	27	픽스트렌드	
11	플레이온캐스트		28	피엔아이시스템	
12	AK엔터테인먼트		29	테테루	
13	대한미디어월드		30	아이코닉스	
14	벤엘글로벌미디어		31	애니작	
15	유나이티드미디어		32	시너지미디어	
16	에픽캔		33	스튜디오 키스톤	
17	에이원미디어		34	오콘	

 방송통신위원회	<h1>보 도 자 료</h1>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6년 4월 7일(목) 배포시점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홍보협력담당관실 국제협력팀 전해선 팀장(☎2110-1331) 장좌영 주무관(☎2110-1332)		제공일: 2016. 4. 7.(목)

고삼석 상임위원 ITU Telecom World 2017 부산 개최 지원

- ITU 사무총장 면담에서 부산 개최 방안 협의 -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은 현지시각 4월 6일(수) 오전 스위스 제네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본부에서 홀린 짜오(Houlin Zhao) 사무총장을 만나 'ITU Telecom World 2017' 행사를 우리나라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ITU Telecom World는 ITU 주관 하에 매년 개최되는 ICT 분야 최대 박람회로 ICT 올림픽으로도 불리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 ICT 관련 다양한 쇼케이스가 진행되며 컨퍼런스와 각종 시상식도 열린다.

< 최근 ITU Telecom World 개최지 >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개최지	태국 방콕(예정)	헝가리 부다페스트	카타르 도하

고삼석 위원은 짜오 사무총장에게 “ITU Telecom World 2017을 한국에서 개최할 경우 한국의 ICT 인프라와 연계한 이벤트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행사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부산은 이미 2014년에 ITU 전권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어 개최도시로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짜오 사무총장은 “한국은 ICT 분야 선진국으로서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될 경우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확신하며, ICT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ITU Telecom World 2017 개최를 위한 기재부 심의가 진행 중이며, 부산시가 최종적으로 유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올 7월에 결정된다. ITU도 이 점을 인식하고 당초 금년 4월로 예정된 유치제안서 제출 기일을 8월로 연기한 바 있다.

부산시는 기재부 승인을 얻는 경우 8월초에 ‘ITU Telecom World 2017’ 유치제안서를 미래부를 거쳐 ITU에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지는 올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ITU Telecom World 2016’ 행사기간 중 발표된다.

한편, 고삼석 위원은 ITU 짜오 총장과의 면담에서 ITU와 UNESCO가 공동으로 구성한 브로드밴드위원회(Broadband Commission) 산하 Demand 워킹그룹에서 발간하는 최종보고서에 KT가 발표한 정보화 사례가 수록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KT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사례로 정부와 함께 추진했던 ‘정보화 마을 프로젝트’와 ‘농어촌 BcN 프로젝트’를 워킹그룹에 제시했으며, 해당 사례가 최종 보고서에 수록될 경우 전 세계에 정보화 모범사례로 소개되어 ‘ICT 강국 대한민국’을 다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월 3일부터 시작된 이번 해외 순방 과정에서 고삼석 위원은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된 MIPTV(국제방송영상전시회)를 참관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서 ITU와 함께 EBU(유럽방송연맹)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우리시각으로 4월 8일 귀국할 예정이다. 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MIPTV '16 참석 및 국제기구 방송통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여행기간	'16.4.3(일)-4.8(금), 4박 6일						
여행국	프랑스(간느), 스위스(제네바)						
방문기관	유럽방송연맹(EBU),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 7,144 +운임실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고삼석	남	50	\$ 4,828 +운임실비	기획조정실 (홍보협력담당관)
	방송기반총괄과	과장 (부이사관)	박동주	남	48	\$ 1,158 +운임실비	
운영지원과	비서관 (행정사무관)	성재식	남	39	\$ 1,158 +운임실비		

* 출장 준비 상황에 따라 상임위원을 제외한 수행자 변동 가능

**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원(자료조사 및 일정관리 등 지원) 동행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4월 3일 (일요일)	서울	간느			
4월 4일 (월요일)				o MIPTV '16 참관 ※ 부스 방문 및 관계자 면담: 고삼석 상임위원 자료조사: 박동주 과장 의전 및 수행: 성재식 비서관	국내외 참가기업 관계자
4월 5일 (화요일)				o MIPTV '16 참관 ※ 부스 방문 및 관계자 면담: 고삼석 상임위원 자료조사: 박동주 과장 의전 및 수행: 성재식 비서관	국내외 참가기업 관계자
	간느	제네바			
4월 6일 (수요일)			ITU	o ITU 방문 및 면담 ※ 면담: 고삼석 상임위원 자료조사: 박동주 과장 의전 및 수행: 성재식 비서관	ITU 사무총장 등
4월 7일 (목요일)			EBU	o EBU 방문 및 면담 ※ 면담: 고삼석 상임위원 자료조사: 박동주 과장 의전 및 수행: 성재식 비서관	EBU 사무국장 등
			ITU	o ITU 방문 및 면담 ※ 면담: 고삼석 상임위원 자료조사: 박동주 과장 의전 및 수행: 성재식 비서관	ITU 표준회총국장 등
4월 8일 (금요일)	제네바	서울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o 붙임자료 참조

4. 여행효과

- (MIPTV 참관) 국제 방송 콘텐츠 분야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참가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
- (국제기구 협력) EBU, ITU 등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를 방문하여 국제적 정책 및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5. 외교부 협조

- 방송통신위원회 대표단 영송 및 이동지원
- 방문기관과의 일정 확인 및 조정 등 업무 협조

[참고자료]

여행 경비 산출표

성명	합계	체재비 (US \$)			운임실비(₩)	해외출장 지원경비 (US \$, 상한)
		일비	숙박비(상한)	식비	GTR	
고삼석	\$ 4,828 + 운임실비	\$ 20×6일= \$ 120	\$ 207×2일= \$ 414 \$ 282×2일= \$ 564	\$ 99×2일= \$ 198 \$ 133×4일= \$ 532	₩ 6,413,400	정액경비 : \$ 1,000 연회비·선물 비 : \$ 2,000
박동주	\$ 1,158 + 운임실비	\$ 15×6일= \$ 90	\$ 137×2일= \$ 274 \$ 176×2일= \$ 352	\$ 59×2일= \$ 118 \$ 81×4일= \$ 324	₩ 2,487,000	
성재식	\$ 1,158 + 운임실비	\$ 15×6일= \$ 90	\$ 137×2일= \$ 274 \$ 176×2일= \$ 352	\$ 59×2일= \$ 118 \$ 81×4일= \$ 324	₩ 2,487,000	

1) 깐느(나금지), 제네바(가금지)

2)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에 따라 공용차량(공용선박 포함) 또는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

국외출장 심사시 주요 확인사항

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v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v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v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v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v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v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v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v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v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v	
	2. 국내외 등 국외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v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국외 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v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v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v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해당사항 없음	